



2024 제8회
전주
비바체
실내악 축제

Jeonju Vivace Chamber
Music Festival

*The Communion of
Heart with Heart*

2024.07.23(Tues)-27(Sat)

주최 및 주관 :

:  MF (사)비바체뮤직페스티벌
www.jeonjuvivace.com

후원 및 협찬 :



평화의전당

JTV

KBS



CBS

MBC

모래내피부과, 현대음악사, (주)공항리무진, Songwoo

2024 제8회 전주 비바체 실내악 축제

Jeonju Vivace Chamber Music Festival

2024.07.23(Tue)-27(Sat)

7.23(화)TUE PM 7:30 세계평화의전당

7.24(수)WED PM 7:30 세계평화의전당

7.25(목)THU PM 7:30 세계평화의전당

7.26(금)FRI PM 7:30 세계평화의전당

7.27(토)SAT PM 4:00 세계평화의전당



조직위원장 인사말



마음을 움직여 열리게 하고 타인을 향해 친절하고 현명한 인간으로...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한다는 이심전심을 주제로 올해 전주 비바체 실내악 축제가 열리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어가고 소통이 어렵다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요. 누군가를 알게되고 누군가에게 오해받지 않고 오롯이 이해되는 경험은 지극히 소중한 마음의 치유가 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어 상대의 이야기를 들을수 있어야 하겠지요.

저는 음악이 마음을 움직여 열리게 하고 타인을 향해 친절하고 현명한 인간으로 되게하는 역할을 한다고 믿습니다. 연주자의 진심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아, 더 나은 관계를 만드는 훌륭한 존재로 성숙되게하는 음악의 힘을 믿습니다.

전주 비바체 실내악 축제에 도움을 주신 전주시, 평화의 전당, 최은식 예술감독님과 전체 참가 연주자님께 감사드리고 축제에 참가하여 성원해주시는 관객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조직위원장 **조 화 림**

전주시장
축 사



이번 축제를 통해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음악의 열정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감동하는 시간을 갖기를...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장 우범기입니다. 「제8회 전주 비바체 실내악 축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전주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올해로 8회를 맞이하는 전주 비바체 실내악 축제는 국내·외 최고의 클래식 연주자들이 참여하여 음악을 통해 문화 교류와 예술의 즐거움을 공유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이번 축제를 통해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 음악의 열정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감동하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다양한 악기들의 개성 있는 선율로 만들어 가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기대합니다. 특히, 일상을 벗어나 클래식으로 힐링 받고 싶은 분들께는 더없이 좋은 축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번 축제를 열정으로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음악인들께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께 축제의 즐거움과 감동이 닿기를 바라며, 아름다운 선율 속에서 뜻깊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주시장 **우 범 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작금에,
우리가 그동안 잃었던 서로와의 소통과 감정들을 다시 공감해야 하는 시대

제8회 전주비바체 실내악 축제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에 전주비바체 실내악 축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클래식 음악 축제로 우뚝 섰습니다. 매년 여름 열리는 이 클래식 음악 축제는 국내외 최정상급 연주자들과 함께 음악을 통해 하나가 되는 특별한 자리입니다.

올해 전주비바체 실내악 축제의 주제는 ‘이심전심’, ‘the communion of heart with heart’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작금에, 우리가 그동안 잃었던 서로와의 소통과 감정들을 다시 공감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실내악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의 현악 4중주가 선보입니다. 영국의 대표 작곡가, 에드워드 엘가, 이탈리아 오페라의 대표적인 작곡가, 주세페 베르디와 자코모 푸치니, 의 멋진 현악 4중주들이 관객 여러분들에게 ‘교감’의 세계로 인도할 것입니다. 7월 25일 목요일 저녁에 젊은 음악도들이 선사하는 ‘Rising Star’ 연주회는 미래를 꿈꾸는 음악가들의 뜨거운 열정과 에너지를 뽐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전주비바체의 감동적인 Story를 이어가면서 끊임없는 사랑과 응원으로 격려해주시는 관객 여러분들, 축제 관계자분들 그리고 매년 후원해주시는 전주시와 우범기 전주시장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덟 번째 전주비바체 실내악 축제에 오신 모든 분을 환영하며, 음악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희망을 다 함께 ‘이심전심’ 할 수 있는 감동적인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음악감독 **최 은 식**

**the communion of
heart with heart**

—

이심전심

PROGRAM

7.23

(화)TUE PM 7:30 세계평화의 전당

● B. Bartok

44 Duo for two violin Sz. 98 중 'Dances'

No:2 Maypole Dance
No:38 Romanian Whirling Dance
No:39 Serbian Dance
No:40 Wallachian Dance
No:42 Arabian Dance
No:44 Transylvanian Dance

(Vn: 김정연 문지원)

● A. Dvorak

Piano Quartet No. 2 in E-flat Major, Op.87

Allegro con fuoco
Lento
Allegro moderato, grazioso-Un pochettino piu mosso
Finale. Allegro ma non troppo

(Piano: 진영선 Vn: 이석중 Va: 강윤지 Vc: 최경은)

Intermission

● F. Mendelssohn

String Quintet No. 1 in A major, Op.18

Allegro con moto
Intermezzo
Scherzo: Allegro di molto
Allegro vivace

(Vn: 송지원 노윤정 Va: 이수민 홍진선 Vc: 최정주)

2024 JEONJU VIVACE CHAMBER MUSIC FESTIVAL

PROGRAM NOTE

B. Bartok 44 Duo for two violin Sz. 98 중 'Dances'**베르토크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44개의 듀오 중 '춤들'>**

베르토크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44개의 듀오>는 간단한 연습곡에서부터 비교적 어려운 테크닉을 필요로 하는 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난이도로 구성된 이중주 모음곡이다. 본래 교육용 목적으로 작곡되었음에도, 한 곡 한 곡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니며 베르토크의 독특한 음악어법이 고스란히 나타나 연주 무대에서 만나기에도 손색이 없다. 오늘은 이 중에서 다양한 지역의 민속춤을 주제로 하는 6개의 곡을 소개한다. 베르토크가 여러 지역의 민속 음악을 직접 수집하고 연구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한 면모가 바로 이 곡들에 녹아있다. 2번 '메이폴 댄스'는 큰 기동을 중심으로 리본을 감아올리는 유럽의 민속춤을 표현한다. 38번 '루마니아 소용돌이 댄스'는 빠르게 회전하는 움직임이 특징인 루마니아의 민속춤을 바이올린 듀오로 풀어냈다. 39번 '세르비안 댄스'에서는 리드미컬한 제스처가 두드러진다. 40번 '알라키안 댄스'는 앞의 두 곡에 비해 비교적 차분한 템포로 출발해 한 차례 빨라진 후 마무리 되는 것이 특징이다. 42번 '아라비안 댄스'는 중 2도 음정이 포함된 오묘한 스케일로 귀를 사로잡으며 매혹적인 분위기를 표현한다. 마지막으로 44번 트랜실바니아 춤은 격렬히 행하는 선율에 어우러지는 싱크레이션 리듬으로 트랜실바니아 특유의 지역색을 강조한다.

A. Dvorak Piano Quartet No. 2 in E-flat Major, Op. 87**안토닌 드보르자크 <피아노 사중주 2번 E♭ 장조>**

드보르자크는 평생에 걸쳐 여러 실내악 작품을 작곡하였는데, 그중 피아노 사중주는 단 두 곡이다. 그는 첫 번째 피아노 사중주를 작곡하고 14년이 지나서야 같은 편성으로 두 번째 작품을 쓰기로 결심했다. 오늘 연주되는 곡은 1889년 여름, 드보르자크가 체코의 시골 마을 비소카에 위치한 별장에 머무는 동안 완성된 두 번째 피아노 사중주이다. 같은 해에 그의 걸작 중 하나인 <교향곡 8번>이 작곡되었는데, <피아노 사중주 2번>에서도 원숙기에 달한 드보르자크가 거침없이 펼쳐내는 음악 세계를 만날 수 있다. 1악장은 현악기의 힘찬 유니즌으로 시작된다. 일종의 '선언'처럼 들리는 이 주제가 1악장 전체를 이끄는 동력이 된다. 피아노의 풍성한 반주 위에서 한 번 더 같은 주제를 들려준 후 음악은 점차 잔잔해지며, G장조에서 부드러운 2주제가 폭넓게 펼쳐진다. 자연스레 두 개의 주제가 교차하는 가운데 음악은 굽이치는 물줄기처럼 세차게 흘러간다. 2악장은 이 곡에서 가장 긴 악장이며, 평화로운 듯 쓸쓸한 첼로의 노래로 문을 연다. 낭만주의적인 서정성이 주를 이루면서도, 중간중간 폭발하듯 터져 나오는 열정적인 패시지가 음악의 흐름과 절묘한 합을 이룬다. 3악장은 우아한 춤곡풍 악장으로 보헤미안의 민속적인 정취가 돋보인다. 4악장은 론도 소나타 형식이며 1악장처럼 유니즌으로 출발해 박진감 넘치는 진행을 보여준다. E♭ 단조로 출발한 음악은 클라이맥스를 거쳐 E♭ 장조로 마무리된다.

F. Mendelssohn String Quintet No. 1 in A major, Op. 18**펠릭스 멘델스존 <현악 오중주 1번 A 장조>**

이 곡을 작곡할 당시의 멘델스존은 불과 열일곱 살 청년이었다. 이 무렵 멘델스존의 천재성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현악 팔중주>와 <한여름 밤의 꿈 서곡>이 언급되곤 하는데, <현악 오중주 1번>은 시기적으로 이 둘 사이에 탄생하였다. 상대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날 멘델스존의 경쾌하고 산뜻한 감성이 가득 담겨있는 매력적인 곡이다. 멘델스존은 모차르트가 현악 사중주 편성에 비올라 한 대를 더하여 확립한 오중주의 전통을 이어받아 기존의 4악장(빠름-느림-춤곡풍-빠름) 구성을 따르면서도, 자신만의 색채를 더해 독자적인 스타일을 구축해나갔다. 소나타 형식의 1악장은 제1 바이올린이 긴 호흡으로 연주하는 아름다운 주제로 시작한다. 첼로의 동적인 패시지를 기점으로 음악이 활기차게 나아가기 시작하며, 곧 악박에서의 스포르찬도를 특징으로 하는 2주제가 등장한다. 전개부에서는 1주제가 단조로 반복되며 분위기의 대조를 이룬다. 2악장 인테레메초는 1832년 멘델스존이 작품을 수정하면서 기존의 미뉴에트 악장 대신에 새롭게 추가한 것인데, 그의 '무언가'(Lieder ohne Worte)들을 떠올리게 하는 서정적인 악장이다. 3악장은 푸가로 시작하는 스케르초이다. 전형적인 트리오 섹션을 배치하는 대신 춤추하게 맞물리는 음들의 짜임새를 곡 전체에 걸쳐 유지한다. 4악장은 소나타 론도 형식이다. 처음에 제시된 밝은 주제가 반복되는 가운데, 두 개의 푸가 에피소드가 전개부의 역할을 한다. 모든 음악적 요소가 멋지게 혼합되며 음악의 피날레를 장식한다.

PROGRAM

7.24

(수)WED PM 7:30 세계평화의 전당

● G. Puccini

"Crisantemi" for String Quartet

Andante Mesto

(Vn: 홍의연 황인영 Va: 강윤지 Vc: 장하얀)

● G. Verdi

String Quartet in E minor

Allegro

Andantino

Prestissimo

Scherzo Fuga, Allegro assai mosso

(Vn: 문지원 황인영 Va: 김남중 Vc: 김소연)

Intermission

● J. Brahms

String Quintet in G Major, Op.111

Allegro non troppo

Adagio

Un poco allegretto

Vivace ma non troppo presto

(Vn: 김덕우 김정연 Va: 서수민 홍진선 Vc: 심준호)

2024 JEONJU VIVACE CHAMBER MUSIC FESTIVAL

PROGRAM NOTE

G. Puccini “Crisantemi” for String Quartet

자코모 푸치니 <현악 사중주를 위한 “크리산테미”>

이 곡은 단약장의 현악 사중주이며, 푸치니의 몇 안 되는 실내악 작품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꼽힌다. 푸치니는 친구 아마데오 왕자(Prince Amadeo, Duke of Savoy)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슬퍼하며 하룻밤 사이 이 곡을 작곡했다. ‘크리산테미’는 이탈리아어로 국화꽃을 뜻하는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화꽃은 세상을 떠난 이들에 대한 애도를 상징했다. 이러한 제목과 안단테 ‘메스토’(슬프게)라는 지시어가 보여주듯, 이 곡은 친구의 죽음을 애도하며 어렵게 가라앉은 작곡가의 마음을 담아낸다. <현악 사중주를 위한 “크리산테미”>에는 두 개의 주제가 등장한다. 먼저 첼로의 나지막한 울림 이후, 바이올린과 비올라의 애수 어린 반음계적 상행선율과 함께 1주제가 제시된다. 피아니시모로 출발한 1주제는 몇 번의 반복을 거치며 점차 포르티시모까지 부풀었다가, 다시 침잠하듯 피아니시모로 돌아온다. 이어서 일렁이는 물결 같은 비올라의 반주 위에서 바이올린이 2주제를 연주한다. 부정 리듬을 타고 도약하는 선율이 2주제의 특징이다. 이후 다시금 1주제가 등장한 후 음악은 한 차례 클라이맥스를 맞이하고, 고요하게 사그라들며 마무리된다.

G. Verdi String Quartet in E minor

주세페 베르디 <현악 사중주 E단조>

베르디는 1873년 나폴리에서 오페라 <아이다>의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소프라노의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인하여 리허설을 연기하게 되었고 예상치 못한 휴식을 얻었다. 베르디는 바로 이 시간을 활용하여 <현악 사중주 E단조>의 작곡에 몰두했다. 결국 이 곡이 ‘오페라 스페셜리스트’ 베르디의 유일무이한 실내악 작품(동시에 유일무이한 ‘순수 기악 작품’)이 되었다. 작곡가 자신은 이 곡이 ‘아름다운지 추한지는 모르겠으나, 사중주라는 것만은 확실하다!’고 겸손히 말했다고 한다. 이 곡을 찬찬히 들어보면 음악의 극적 차원을 유려하게 끌어내는 베르디의 강점은 물론, 그가 각 성부의 관계를 철저히 고려하며 논리적, 대위적으로 기악음악을 직조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1악장에서부터 이 점이 두드러지는데, 서글픈 1주제와 평온한 2주제를 지니는 소나타 형식의 곳곳에 푸가가 녹아있다. 2악장은 뿔랑뿔리한 느낌의 왈츠가 중심이 되는 악장으로, 이 왈츠가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되며 전개된다. 3악장은 빠르고 극적인 주제 뒤에 첼로의 아리아가 이어지고, 다시 원래의 주제로 돌아오는 3부 형식의 곡이다. 4악장은 ‘스케르초 푸가’라는 제목을 지닌다. 어쩌면 베르디는 베토벤의 그 유명한 ‘대푸가’(Grosse Fuga)를 염두에 두고 이러한 제목을 정한 것이었을 지도 모른다. 장엄한 베토벤의 푸가와는 사뭇 다르게, 베르디의 푸가는 시종일관 매우 경쾌하고 역동적인 분위기로 흘러간다.

J. Brahms String Quintet in G Major, Op.111

요하네스 브람스 <현악 오중주 G장조>

1890년, 57세를 맞은 브람스는 <현악 오중주 G장조>를 자신의 마지막 작품으로 삼으려 했었다. 실제로는 그 후로도 여러 작품을 발표했지만, 적어도 이 곡을 작곡하는 동안에는 여기에 자신이 평생을 갈고 닦은 예술적 정수를 쏟아내겠노라 다짐했던 것이다. 스스로 작곡가 인생의 겨울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한 브람스는 과연 이 음악을 통해 어떠한 이야기를 들려주려 했을까? 으레 이런 배경을 지닌 작품이라면 심오하고 무거운 정서가 두드러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지만, 이 곡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겨울보다는 봄을 연상케 하며, 무겁기보다는 경쾌하다. 1악장은 9/8박자의 소나타 형식으로, 바이올린과 비올라의 분산하음 아래 첼로가 힘차게 상행하는 1주제를 연주한다. 그 기세가 마치 대지에서 뻗어 오르는 나무를 연상케 한다. 이어서 비올라가 서정적인 2주제를 먼저 연주하고, 바이올린이 옥타브 위에서 이를 반복한다. 2악장은 느린 변주곡 악장으로, 비올라가 노래한 주제를 바이올린이 변주하며 음악이 전개된다. D단조로 출발해 D장조의 화음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특징이다. 3악장은 미뉴에트풍의 3부 형식인데, 전통적인 미뉴에트와 달리 트리오 주제를 활용한 종결부로 끝이 난다. 4악장은 B단조의 짧은 주제로 시작하여, 점차 많은 음이 뻗어 나오며 일련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낸다. 결국 음악은 G장조로 돌아와 활기를 되찾고 장대하게 막을 내린다.

7.25

(목)THU PM 7:30 세계평화의 전당

“The Rising Stars”

● F. Chopin

Introduction and Polonaise Brillante in C Major, Op.3

Lento

Alla Polacca

(첼로: 배소율)

● H. Wieniawski

Variations on an Original Theme, Op.15

Allegro guerriero

(바이올린: 홍성운)

● D. Shostakovich

Cello Concerto no. 1 in E-flat major, Op.107

4악장: Allegro con moto

(첼로: 조민)

● M. Reger

Suite for solo Viola in g minor, Op.131d No.1

Molto Sostenuto

Vivace

Andante Sostenuto

Molto Vivace

(비올라: 김재영)

Intermission

2024 JEONJU VIVACE CHAMBER MUSIC FESTIVAL
PROGRAM

7.25

(목)THU PM 7:30 **세계평화의 전당**

“The Rising Stars”

● **E. Ysaÿe**

Caprice d'après L'Etude en Forme de Valse de Saint-Saëns

Allegro di valse

(바이올린: 안소린)

● **J. Hubay**

Carmen Fantasie Brillante, Op.3, No.3

Andante Moderato

(바이올린: 최보경)

● **D. Shostakovich**

Cello Sonata in d minor, Op.40

Allegro non troppo

Allegro

(첼로: 김태연)





Violin 안 소 린

- 서울예고 교내콩쿠르 1위
- 음악저널 콩쿠르 1위
- 예원 음악 콩쿠르 1위
- 아시아 차이콥스키 영 아티스트 콩쿠르 1위 없는 2위
- KCO 콩쿠르 2위
- Osaka International Music Competition Espoir Prize
- 예원학교 실기우수상
- 현)서울예고 재학
- 사사)김정연



Violin 최 보 경

- 이화경향, 세계일보, 음악춘추, 음연, 스트라드, 코리아헤럴드, 국민일보 한세대, 서울 비르투오지, KCO, 음악 교육신문사 콩쿠르 1위 및 입상
- CBS 콩쿠르 현악부문 최우수상
- Korea-China International Violin Competition 1st prize
- 시티 팔하모닉 오케스트라, 서울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 콩쿠르 전체 대상 및 협연
- 강릉시립교향악단, 청주시립교향악단, 충북도립교향악단, 서울 유스 오케스트라, 불가리아 슈멘 팔하모니 오케스트라 협연
- 서울 스프링 실내악 축제 연주, 서울대학교 오케스트라 악장 역임
-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수료, 예원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졸업(공로상 수상)
- 현)서울대학교 4학년 재학
- 사사)노윤정



Violin 홍 성 윤

- TBC 음악콩쿠르 중등부 3등
- 음악춘추 콩쿨 중등부 2등
- 성정 음악콩쿠르 중등부 3등
- KCM 음악콩쿨 중등부 1등
- 2024 더클래식 KNN방송교향악단 협연
- 현)부산예술중학교 3학년 재학
- 사사)황인영



Viola 김 재 영

- 예원학교 실기우수 졸업, 서울예술고등학교 졸업
- 서울예술고등학교 영아티스트 콘서트
- 금호 영아티스트 콘서트
- 이화경향콩쿠르, 세계일보콩쿠르, 스트라드콩쿠르 1위
- 성정전국음악콩쿠르 금상, 음악교육신문사콩쿠르 현악부문 전체 차상
- Just Vivace Festival 콩쿠르 1위 및 Just Vivace Ensemble 협연
- KCO 라이징스타 콘서트 협연
- SNU String Ensemble, SNU Symphony Orchestra, KCO 협연
- 현)서울대학교 4학년 재학
- 사사)최은식

2024 JEONJU VIVACE CHAMBER MUSIC FESTIVAL

RISEING STAR PROFILE



Cello 김태연

- 2024 폴란드루토스라브시키 첼로 국제 콩쿠르 한국인 최초·최연소 1등, 그라베 곡 특별연주자상 및 9개 특별상 수상
- 2023 영 차이코프스키 국제 콩쿠르 은메달 및 최고 바하 연주자 상
- 2022 예원학교 수석 졸업
- 2021 야니그로 첼로 국제 콩쿠르 주니어 부분 1등, 구스타브 말러 첼로 국제 콩쿠르 1등 및 지휘자 특별상
- 현대 정몽구 재단 장학생
- 2020 오사카 국제 콩쿠르 2등, 금호 영재 오디션 합격 및 독주회
- 2019 동아 주니어, 이화콩쿠르, 한국일보, 음악춘추, 스트라드, 음연, 코리아 헤럴드, 예원, 육영콩쿠르 등 국내외 콩쿠르 다수 우승
- 현)미국커티스음대 재학
- 사사)개리호프만



Cello 배소율

- 예원학교 수석입학
- 음악춘추 콩쿠르, 스트라드 콩쿠르, KCO콩쿠르, 음연콩쿠르, 예원콩쿠르 1위
- 이화경향 콩쿠르, 동아주니어콩쿠르 2위
- Suzuki Manila Junior Symphony Orchestra 협연
- Lyum Chamber Orchestra 협연
- 현)예원학교 재학
- 사사)장하얀



Cello 조민

- 오사카 국제콩쿠르 현악 1위
- 이화경향 콩쿠르, 예원, 음연 1위
- 음악저널 1위 및 현악특별상, 음악교육신문사 현악 대상
- 음악춘추 2위, 동아주니어 3위
- 리움챔버, 이무지치 챔버, 서울 오케스트라 협연
- 2023 파리뮤직포럼 영아티스트 선정
- 현)예원학교 3학년 재학
- 사사)오지현

PROGRAM

7.26

(금)FRI PM 7:30 세계평화의 전당

● F. Schubert

Quartettsatz in C minor, D.703

Allegro assai

(Vn: 송지원 정진희 Va: 김남중 Vc: 홍승아)

● R. Gliere

String Octet in D Major, Op.5

Allegro

Allegro moderate

Andante

Allegro assai

(Vn: 김정연 정진희 홍의연 황인영 Va: 홍지혜 이수민 Vc:오지현 정광준)

Intermission

● J. Brahms

Piano Quartet in G minor

Allegro

Intermezzo: Allegro ma non troppo-Trio: Animato

Antante con moto

Rondo alla Zingarese: Presto

(Piano 서형민 Vn: 김현미 Va: 최은식 Vc: 김민지)

2024 JEONJU VIVACE CHAMBER MUSIC FESTIVAL

PROGRAM NOTE

F. Schubert Quartettsatz in C minor, D. 703**프란츠 슈베르트 <현악 사중주 C단조>**

슈베르트의 <교향곡 8번>이 전체 곡이 다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어 '미완성 교향곡'으로 불린다면, 같은 이유로 그의 <현악 사중주 C단조> 또한 '미완성 사중주'로 불릴 수 있을 것이다. 슈베르트는 이 곡의 1악장만을 작곡했는데, 전체 사중주를 완성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존재한다. 하지만 작곡가 본인이 확실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기에 진실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슈베르트 생전에 이 사중주는 한 번도 연주되지 않았지만, 그의 사후 약 40년 뒤인 1867년에 비로소 초연되어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다. 이 곡은 빠른 6/8박자의 소나타 형식이다. 긴박한 트레몰로 선율이 제1 바이올린부터 제2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로 확장되며 스산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후 음악은 A♭ 장조 영역을 향해 흘러가고, 제1 바이올린과 첼로가 차별한 2주제와 대선율을 연주한다. 또다시 긴박하게 질주하던 음악은 갑작스러운 A♭ 장조 코드의 등장과 함께 전개부로 넘어간다. 몇 번의 동형진행을 거친 후 다시 2주제가 등장하는데, 이미 음악은 재현부에 접어들 뒤이다. 그렇다면 트레몰로 선율, 즉 1주제는 어디로 간 것일까? 슈베르트는 이를 곡의 가장 마지막에 배치하는 기지를 보여준다. 유보된 1주제가 들려오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R. Gliere String Octet in D Major, Op.5**라인홀트 글리에르 <현악 팔중주 D장조>**

글리에르는 1875년 우크라이나의 키예프에서 태어난 러시아(구소련)의 작곡가이다. 그는 러시아 국민악파의 뒤를 이어 20세기에 활발히 활동하며 낭만주의적 감성과 러시아 민속 음악의 색채를 결합하고자 했다. 글리에르는 음악원에서 교편을 잡기도 했는데, 카차투리안과 프로코피예프가 바로 그의 제자였다. 오늘 연주될 <현악팔중주 D장조>는 그의 초기 작품이며, 바이올린 스승이었던 얀 흐리말리(Jan Hřimalý)에게 헌정되었다. 1악장은 매끄러운 유니즌의 1주제, 첼로가 노래하는 유려한 2주제를 지닌다. 두 주제 모두에 러시아의 향기가 짙게 배어있는 것이 특징이다. 전개부에서는 앞서 유니즌으로 제시된 1주제가 여러 성부에 걸쳐 폴리포닉적으로 펼쳐진다. 빠른 템포의 2악장에서도 1악장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서정적 정취가 돋보인다. 3악장은 부드럽고 차분한 멜로디로 시작해 서서히 클라이맥스로 향해간다. 부점 리듬의 코드로 시작되는 4악장은 비올라의 감미로운 2주제를 지나 점차 고조된 후, 다이내믹한 템포 변화를 거쳐 열정적으로 흘러간다. 이윽고 코다에 이른 음악은 긴 호흡의 크레센도 끝에 3/2박자로, 이어서 2/2박자로 변화한 뒤 막을 내린다.

J. Brahms Piano Quartet in G minor Op.25**요하네스 브람스 <피아노 사중주 G장조>**

브람스는 본격적으로 자신만의 음악언어를 확립해가던 20대 중반 약 5년(1856-1861년)에 걸쳐 이 곡을 작곡하였다. 패기 넘치는 젊은 시절 오랜 기간 몰두한 작품인 만큼 숨길 수 없는 정열과 거침없는 전개가 귀를 사로잡는다. 브람스의 실내악 작품 중에서도 특히 사랑받고 자주 연주되는 곡이다. 초연에서의 피아노 연주는 브람스가 평생에 걸쳐 연모했던 클라라 슈만이 맡았다고 전해진다. 쇤베르크는 이 곡에 크게 감명받아 관현악곡으로 편곡하기도 했다. 1악장은 소나타 형식으로, 천천히 걸음을 떼듯 피아노가 오프닝 테마를 제시한다. 이어서 첼로와 비올라, 바이올린이 차례차례 같은 주제를 들려준다. 첼로가 연주하는 2주제는 먼저 D단조에서 쓸쓸히 제시된 후, D장조에서 더욱 활기차게 반복된다. 트리오 섹션을 지닌 2악장은 현악기들의 응집력 있는 연주로 시작된다. 테마 자체는 매우 서정적이지만, 8분음표의 리듬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며 긴박한 느낌을 자아낸다. 3악장은 3부 형식이며 E♭ 장조의 차분한 노래로 시작해 장엄한 행진곡풍의 C장조로 나아간다. 4악장은 '집시풍의 론도'라는 제목이 암시하듯 매우 빠르고 리드미컬하며, 헝가리 민속 음악의 색채가 짙게 느껴진다. 메인 테마와 성격을 달리하는 풍부한 에피소드들이 음악에 다채로움을 더한다.

PROGRAM

7.27

(토) SAT PM 4:00 가족음악회 세계평화의 전당

지휘: 강창우 JVF Chamber Orchestra

● A. Vivaldi

L'Estro armonia op 3 no.1 D major

Allegro

Largo e spiccato

● W. A. Mozart

Sinfonia Concertante in Eb major, K. 364

Allegro maestoso

(Solo-Vn: 김현미 Va: 최은식)

● B. Bartok

Romanian Folk Dance for Strings

Stick Dance

Sash Dance

In one spot

Dance from Bucsum

Romanian Polka

Fest Dance

● E. Elgar

Introduction and Allegro for Quartet and Strings

(String Quartet-Vn: 김덕우 노윤정 Va: 서수민 Vc: 김민지)

● P. I. Tchaikovsky

"Souvenir de Florence", Op.70

Allegretto moderato

Allegro con brio e vivace

2024 JEONJU VIVACE CHAMBER MUSIC FESTIVAL

PROGRAM NOTE

A. Vivaldi L'Estro armonico, Op.3 no.1 D major**안토니오 비발디 <조화의 영감 op.3 1번 D장조>**

후대의 음악계에 비발디가 미친 영향을 논할 때, 그가 협주곡 장르의 확립과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사실은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그가 작곡한 협주곡이 약 500여 곡에 달한다는 점만 떠올려도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그중 반 이상이 바이올린 협주곡인데, 바이올리니스트 아버지의 슬하에서 성장하여 그 자신 또한 바이올린 주자로 활동했던 이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조화의 영감>은 총 12곡의 바이올린 협주곡 모음집이며, <사계>와 함께 비발디의 대표작으로 널리 사랑받는 작품이다. 각각의 곡들은 모두 빠름-느림-빠름의 3악장으로 구성되어 협주곡의 표준적 기반을 다지고 있다. 바흐(J.S.Bach)는 <조화의 영감>을 이루는 총 12개의 곡 중 6개를 오르간이나 하프시코드용으로 편곡하여 비발디에게 경의를 표했다고 전해진다. 오늘의 무대에서는 첫 번째 곡의 1악장과 2악장을 감상한다. 작은 규모의 '콘체르티노' 그룹과 더욱 큰 규모의 '리피에노' 그룹 사이에서 오가는 섬세한 대화가 특징이다.

W. A. Mozart Sinfonia Concertante in E♭ major, K. 364**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신포니아 콘체르탄테 E♭ 장조>**

'신포니아 콘체르탄테'는 주로 18세기 후반 유럽에서 큰 인기를 끈 장르이며, 교향곡과 협주곡의 특성이 한 데 섞여 있는 과도기적 성격을 보인다. 두 개 이상의 솔로 악기와 오케스트라가 조화를 이루기도 하고, 서로 다른 주제를 연주하기도 하며 음악을 엮어나간다. 모차르트는 1777년부터 2년간의 유럽 여행을 마치고 고향 잘츠부르크로 돌아오던 중 <신포니아 콘체르탄테 E♭ 장조>를 작곡했다. 이 외에도 같은 시기 몇 곡의 신포니아 콘체르탄테를 구상하였으나 완결된 형태로 남겨진 것은 이 작품이 유일하다. 오늘은 전체 세 개의 악장 중 첫 번째 악장을 만나본다. 음악은 장중한 오케스트라가 들려주는 첫 번째 제시부로 시작한다. 화려한 트릴과 싱크로페이션을 지나 총주가 끝날 무렵, 솔로 바이올린과 비올라의 아름다운 유니즌이 들려오며 두 번째 제시부가 시작된다. 두 악기는 서로 화합하기도, 경쟁하기도 하며 함께 앞으로 나아간다. 밝은 음색의 칸타빌레로 이어지던 음악은 잠시 G단조와 C단조에 머물며 어두운정서를 드러내다가, 5도권의 화성 진행을 거쳐 다시 E♭ 장조로 돌아온다. 악장의 말미에는 두 악기의 아름다운 카덴차가 펼쳐진다.

B. Bartok Romanian Folk Dance for Strings**벨러 버르토크 <현을 위한 루마니아 민속춤곡>**

이 곡은 원래 피아노를 위해 작곡된 6개의 짙막한 모음곡이었다. 버르토크는 당시 헝가리에 속해 있던 루마니아의 산악 지대를 돌며 루마니아인들의 민속 음악을 채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루마니아 민속 춤곡>을 작곡하였다. 오늘의 무대에서는 이 곡을 현악합주의 편성으로 만난다. 버르토크는 트랜실바니아 지역의 한 마을에서 두 사람의 집시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하는 음악을 들었는데, 1악장의 멜로디가 여기에서 유래했다. 2악장은 '브라우'(Brâu)이라는 이름의 전통춤과 관련이 있으며, 멜로디는 루마니아 서부에 위치한 바나트(Banat)의 민속 음악에서 유래했다. 3악장도 같은 지역의 음악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나, 더욱 어두운 분위기로 중동 지역 음악 특유의 음계가 두드러진다. 4악장은 오늘날 부치움(Bucium)으로 불리는 지역에서, 5악장은 헝가리와 루마니아 국경 근처에서 만난 전통춤에서 유래했다. 축제 분위기의 6악장에는 두 개의 주제가 등장하는데, 각각 베이우쉬(Beiuş), 네아그라(Neagra)라는 이름을 지닌 마을에서 유래했다.

PROGRAM NOTE

E. Elgar Introduction and Allegro for Quartet and Strings

에드워드 엘가 <사중주와 현을 위한 서주와 알레그로>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18세기 이후 영국에서는 국제적 명성을 지닌 작곡가가 오랜 시간 부재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엘가의 등장은 '영국 음악의 새로운 르네상스'를 연 것과 같았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그의 작품들은 영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유럽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엘가의 명성이 전성기에 달할 무렵인 1905년, 새롭게 창단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엘가의 전국 연주회를 기획하였다. <사중주와 현을 위한 서주와 알레그로>는 바로 이 연주회를 위해 작곡되었다. 이 곡은 큰 규모의 현악 앙상블과 소수의 사중주가 대화하듯 전개되는데, 이러한 구조는 바로크 시대의 '콘체르토 그로소'(합주협주곡)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서주는 비장하게 하행하는 G단조의 선율과 고요하고 서정적인 E♭장조의 테마로 채워진다. 알레그로는 G장조의 소나타 형식으로, 우아하고 투명한 1주제와 폭넓고 짙은 음색의 2주제로 구성된다. 춤추는 음으로 빠르게 채워진 경과구가 두 주제를 이어준다. 전개부가 푸가를 중심으로 흘러간다는 것도 특징적이다.

P. I. Tchaikovsky "Souvenir de Florence", Op.70

표트르 차이콥스키 <플로렌스의 추억>

차이콥스키는 발레 <잠자는 숲 속의 미녀> 초연이 끝난 후 지친 심신을 달래고자 이탈리아 플로렌스(피렌체)에서 잠시 휴식을 보냈다. <플로렌스의 추억>은 그 시절의 기억을 바탕으로 탄생한 곡이다. 그러나 이 곡에 담긴 기억의 조각들은 그리 달콤하게만 느껴지지는 않는다. 걱정적이고 거친 질감으로 몰아치는 음악은 아름다운 도시의 정경에도 쉬이 떨치기 어려운 차이콥스키 마음 속 고민이나 불안을 보여주는 듯하다. 오늘의 무대에서는 3악장과 4악장을 소개한다. 조용한 A단조 화음을 배경으로 비올라가 러시아 민요풍의 선율을 노래하며 3악장이 시작된다. 이 주제는 비올라가 연주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음에 도달한 뒤 제1 바이올린으로 이동한다. 이윽고 첼로가, 다시 바이올린이 같은 선율을 노래한 후 스타카토 패시지와 피치카토를 중심으로 하는 섹션에 접어든다. 익살스러운 분위기가 무르익는 순간, 앞서 들었던 민요풍의 선율이 오버랩되며 음악적 요소들이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 4악장에서도 러시아 민요를 닮은 주제가 음악을 주도하며, 반주의 2대 3 리듬이 긴장감과 추진력을 불어넣는다.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차이콥스키 특유의 2주제도 이 곡의 백미이다. 극단적인 셈여림과 긴 호흡의 크레센도가 손에 땀을 쥐게 만들고, 격정적인 템포로 몰아치는 코다의 말미에 첫 번째 주제가 장조로 화려하게 반복되며 대단원을 장식한다.

Profile



2024 JEONJU VIVACE CHAMBER MUSIC FESTIVAL

PROFILE



음악감독 _ Viola

최 은 식

- 서울예고 재학 중 도미
- 미국 커티스 음악원 및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 졸업
-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 신시네티 컬리지 콘서바토리 오브 뮤직 교수 역임
- 보로메오 현악 4중주단 창단 멤버
- 뉴욕 영 콘서트 아티스트 콩쿠르, 프랑스 에비앙 콩쿠르 우승
- 이탈리아 스폴레토 페스티벌, 미국 산타페 페스티벌, 라호야 페스티벌, 중국 베이징 뮤직 페스티벌 등 초청 연주
- LA 디즈니홀 개관기념연주, 링컨센터, 케네디 센터, 위그모어홀, 산토리홀 등 다수 연주
- 광복 50주년 기념 초청 내한연주, 한국을 빛낸 7인의 음악가선정(1997년~2001년)
- 현)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Just Vivace Festival 음악감독



지휘

강 창 우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바이올린)및 동 대학원(음악학)졸업
- 헝가리 리스트 음악원 우등졸업, 모스크바 그네신 음악원 박사과정(오케스트라 지휘)졸업
- 서울시향단원, 코리안 심포니, 유라시안챔버 비올라 수석 역임
- 서울 심포니 오케스트라, 코리안 심포니, 제주시향, 전주시향, 인천시향등 객원 지휘
- 러시아 페더럴 오케스트라, 우크라이나 국립교향악단, 트랜실비니아 주립오케스트라 쿠르즈 필하모닉 등 다수 지휘
- 구리시 교향악단 상임 지휘자, 협성대 강의전담교수, 국립 경찰교향악단 단장, 성신여대교수 역임
- 현)서울대 현악합주 지휘자
- 현)Just Vivace Festival 오케스트라 지휘자
- 현)코리안스트링즈 지휘자
- 현)선화예술학교 현악합주 지휘자



Violin

김 덕 우

- 줄리어드 예비학교 졸업, 줄리어드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사사 강효, 전액장학금)
- 삼성문화재단, Charles Petschek Award 수상, 서울시장 표창 수상
- 아스펜국제음악제 오케스트라, 코리안챔버 오케스트라, 서울, 부산, 경기, 수원시향 등과 협연
- 뉴욕 카네기홀, 링컨센터, 워싱턴 케네디센터 등 세계 유수 저명 홀에서 독주회
- 서울시향 제2바이올린 수석, 서울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겸임교수 역임
- 현)중앙대학교 부교수
- 현)KCO(코리안챔버오케스트라), 아시아 필하모닉, 원코리아 오케스트라 수석단원 및 콰르텟 21 멤버

2024 JEONJU VIVACE CHAMBER MUSIC FESTIVAL

PROFILE



Violin

김 정 연

- 예원, 서울 예고, 서울대학교 실기 수석 및 우등 졸업,
- 예일 대학교 석사, 최고 연주자 과정 전액 장학 졸업, 뉴저지 주립대 박사 전액 장학 졸업
- 소년 한국일보 콩쿨 대상, 이화.경향 콩쿨 입상, 서울 실내악 콩쿨, 서울심포니콩쿠르, AFAF 국제콩쿨, 메이슨 그로스 챔버 콩쿨 1위
- 미국 카네기 홀, 링컨 센터, 디메나 센터, 세인트 메리언, 예술의 전당, 금호아트홀 등 한국과 미국, 독일에서 초청 독주회
- 미 연방 의원 표창장 수상, 뉴저지 상하원 의장 상 수상, 뉴저지 주 의회 감사장 수상, 미국 대통령 봉사상 수상
- 현)서울대, 연세대, 예원, 서울예고, 선화 예중, 예고 강사 및 남예중 교수
- 현)미국 501c3 국제 연주자 협회 SIA 예술 감독



Violin

김 현 미

- 한국일보 콩쿠르, 동아일보 콩쿠르, 워싱턴 국제 콩쿠르 입상
- 탕글우드, 말보로 여름 음악제, 윤이상 음악제 (베를린, 평양) 등 초청 연주 "Musician's from Marlboro" 미국 순회
- The Quartet Program (Director, Charles Castleman), USA 초청교수, 2000, 2004
- 예음상 수상(1991), 올해의 예술상(2006), 대한민국 예술상 수상(2007) 대원음악상 연주상(2008) 수상
- 현)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콰르텟21 멤버, 에드무지카 리더
- 현)코리아나 챔버뮤직 소사이어티 음악감독



Violin

노 윤 정

- 예원학교, 서울예고 전체수석졸업(음악상수상), 서울대 학사 및 석사 전액장학졸업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음악박사 학위 취득
- 오사카 국제 콩쿨, 이화경향, 세계일보, 한국일보, 중앙일보, 난파콩쿨 등 1위 및 입상
- Miyazaki International Festival 연주, 서울대 미주동창회 초청 미주투어연주, 윤이상 탄생100주년 기념 TIMF 유럽투어연주, 서울튜딩앙상블 독일투어연주
- 서울예고 정기연주회 협연, 서울 심포니 오케스트라, 성남시교향악단, 서울클래식컬레이어즈, 서울비르투오지, 서울대학교 개교70주년음악회 협연
- 현)서울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수원대학교 객원교수
- 현)서울예고, 예원학교, 선화예고, 선화예중 출강
- 현)화음챔버오케스트라, 서울비르투오지 단원

PROFILE



Violin

문 지원

- 서울대학교 졸업, 독일 라이프치히 국립음대 티칭 어시스턴트, 디플롬, 마스터, 마이스터엑자멘 졸업
- 원현팔하모닉 챔버오케스트라, NBCM 라이프치히, 인천시립교향악단, 코리아심포니오케스트라 협연
- 이태리 Sermoneta 뮤직 페스티벌, 스페인 Fampse 뮤직 페스티벌, 독일 Wagner 축제, 홀란드 뮤직 세션, 슈만하우스, 멘델스존하우스, 주 독일 한국문화원 초청연주
- 게반트하우스오케스트라 라이프치히, 드레스덴 슈타츠키텔레 근무
- 현)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예원, 서울예고, 선화예중·고 출강
- 현)양상블 텐텐 음악감독



Violin

송 지원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학사, 석사 졸업
- 독일 쾰른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 세계일보 콩쿠르 대상 및 조선일보, 부산음악콩쿠르, kbs신인음악콩쿠르, The Canatti International Competition 등 입상
- 독일 함부르크 심포니, 뒤셀도르프 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석 역임
- 현)서울대, 세종대, 예원, 서울예고, 선화예고 출강
- 현)Symphony S.O.N.G 악장
- 현)대전챔버오케스트라 악장
- 현)서울비루투오지, 화음챔버오케스트라 멤버



Violin

이 석 중

- The Juilliard School pre-college, 예원학교 졸업
- 서울예고 수석입학,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사, 독주자 과정 졸업
- 전액 장학생으로 미국 Yale 대학교 석사(M.M) 및 최고연주자과정(AD)졸업
- 중앙일보, 한국일보, 조선일보, 이화경향 콩쿠르 입상
- 한국음악협회 주관인 해외파견 콩쿨 현악부문 전체대상(병역특례), 예원·서울예고를 빛낸 음악인상 수상
- KBS교향악단, 국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등과 협연
- 아베고 스트링 콰르텟 리더, 유토피아 클래식 앙상블 음악감독, 서울 튜터앙상블 악장, TIMF 앙상블 단원
- 현)국립 강원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2024 JEONJU VIVACE CHAMBER MUSIC FESTIVAL PROFILE



Violin 정 진 히

- 예원, 서울예고, 서울대학교 졸업
- 독일 라이프치히 음대, 독일 로스톡음대, 독일 슈투트가르트음대 졸업
- 네덜란드 Charles Hennen 국제콩쿨 한국인 최초 우승 및 특별상
- 그리스 Thessaloniki 국제콩쿨 한국인 최초 우승 및 심사위원 특별상
- 독일 Sophie Charlotte 국제바이올린콩쿨 3위 및 특별상
- 스페인 바르셀로나 Maria Canals 국제콩쿨 준결승, 오스트리아 Brahms국제콩쿨 준결승
- 독일 도이치오퍼 베를린, 부천시향, 성남시향, 제주시향,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심포니, 고양필, 한경필, 뉴월드심포니, 서울아카데미앙상블 등 협연
- 성남시향, 천안시향, 원주시향, 춘천시향, 목포시향, 강남심포니, 아르츠심포니, 프라임 필하모니, 코리아 콤오케스트라, 뉴월드심포니 객원악장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우교수, 한경필하모닉 악장, 한양대, 경희대, 국민대, 서경대, 경북대, 강남대, 강릉원주대 출강 역임
- 트리오 콘 스피리토 리더



Violin 홍 의 연

- 예원학교 명예졸업
- 미국 오벌린 음대 퍼포먼스디플로마, 독일 쾰른 국립음대 디플로마, 최고연주자과정 최우수 졸업
-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국립음대 석사 최우수 졸업
- 이화경향 콩쿠르 1위
- 영 비에니아프스키 국제 콩쿠르 시니어부 1위
- 칼 넬슨 국제 콩쿠르 3위, 사라사테 국제 콩쿠르 3위
- 리스본 국제콩쿠르 1위 및 특별상
- 코퍼스 크리스티 국제콩쿠르 2위 및 특별상, 올레크리사 국제콩쿠르 2위
- 런던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 협연
- 서울대 강사 역임
- 서울대, 숙명여대 강사 역임
- 현)KCO 정단원, 이화여대, 예원, 서울예고, 선화예중고 출강
- 현)SCC 전임교수



Violin 황 인 영

- 서울대학교음악대학학사최우등졸업
- 미국예일대학교석사, MMA 졸업(전액장학생)
- 한국예술종합학교독주자과정졸업
- 미국NewHavenSymphonyOrchestra 단원 역임
- 롯데문화재단 신진아티스트 선정
- 미국WhitneyCenter, 서울시, 청와대, 시민청 초청연주
- 현)에드무지카 멤버
- 현)한국예술종합학교, 부산대학교, 예원학교, 서울예고, 선화예중, 선화예고, 부산예중, 부산예고, 경기예고,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출강

PROFILE



Viola

강 윤 지

- Curtis Institute On Music 학사, New England Conservatory 석사, 연주자 졸업
- Berlin Kammer Orchestra, 코리안 심포니오케스트라, 원주시립교향악단, 서울시립교향악단 등 협연
- Verbier Music Festival, Ravinia Music Festival, The Chamber Music Society of Lincoln Center 초청 연주
- 임원식 장학재단 온파 장학회 음악상
- 현)서울시립교향악단 비올라 수석, 서울대학교 출강



Viola

김 남 중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실기 수석입학/졸업
- 미국 인디애나 음악대학 전액 장학생 입학/수석졸업
- 음악교육학 석사, 예술학 박사 (Ph.D)
- 뉴욕 카네기홀, 베를린 필하모니홀, 러시아, 프랑스 등 초청 독주
- 비올리스트 최초 뉴욕 UN본부 총회의장 독주, 'UN 국제평화기여 예술가상' 수상 및 뉴저지 상원의원 상 수상
-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회 기원 음악회 음악감독, 융복합공연예술축제 파다프 개막작 선정 및 최우수음악상 수상
-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 역임
- 현)엔클래식앙상블, 융복합공연예술협회 대표



Viola

서 수 민

- 서울대 음대 졸업
- 독일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 전문연주자 과정 및 최고연주자과정 수석 졸업
- 동아콩쿠르 1위, Johannes- Brahms 국제 콩쿠르 1위
- 2008 신인음악상 대상, 독일 바덴바덴시 시장상 등 수상
- 독일 바덴바덴 필하모니(Baden-Badener philharmonie), 충남교향악단, 수원, 원주, 청주시향, 충북도립오케스트라, KT, 리움, 제주, 서울챔버 오케스트라 등 다수 협연
- 충남교향악단 수석 역임
- 현)추계예술대학교 교수
- 현)코리애나 챔버뮤직 소사이어티, 앙상블 PACE 멤버

2024 JEONJU VIVACE CHAMBER MUSIC FESTIVAL PROFILE



Viola 이 수 민

- 예원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졸업
- 독일 쾰른 음악 대학 디플롬, 최고연주자 과정 최우수 졸업
- 독일정부 학술교류처 DAAD 장학생으로 도독
- 동아일보콩쿠르 우승, 세계일보콩쿠르 대상
- 쾰른콩쿠르 입상
- 독일 Duisburger Philharmoniker 제 1수석 역임
- 코리아나 챔버뮤직 소사이어티의 멤버로 활동 중
- 현)한예중, 한양대 겸임교수
- 현)서울대 출강



Viola 홍 지 혜

- 서울예고, 서울음악대학, 한국예술종합학교 전문사 수석졸업
- 독일 만하임 국립음대 전문연주자 과정 수석 졸업
- 한국청소년실내악 콩쿨, 31회/34회 동아콩쿨 입상
- 서울청소년 교향악단 수석, 코리아나 심포니, 원주시향 객원수석 역임
- 독일 만하임, 하이델베르크, 토마스하임, 서울, 부산 등지에서 다수의 독주회 개최
- 강릉시향, 협스트링 앙상블 협연, 반주학회, 리움 등 초청연주
- 올라비올라 앙상블 동유럽/파리 순회연주
- 모리스파르텟 베토벤전곡, 대한민국예술원, 각종기획시리즈, <아하브>찬양음반 발매
- 현)한국예술종합학교, 한예중 영재교육원, 예원, 서울예고, 선화예고 출강



Viola 홍 진 선

- 예원학교, 서울예고 졸업, 서울대학교 재학 중 도미하여 커티스 음악원 학사, 뉴잉글랜드 음악원 석사 및 연주자과정 졸업, 미국 메릴랜드 주립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 인천필, 한경필, 우크라이나 국립 심포니, 올라비올라 사운드와 협연
- 영 콘서트 아티스트 오디션, 프리미오 파올로 볼치아니 콩쿨, 트론하임 콩쿨, 보르도 콩쿨 등 파르텟 콩쿨 상위 입상
- 프루시아 코브 뮤직 세미나, 브라보 베일 뮤직 페스티벌, 카라무어 뮤직 페스티벌, 라비니아 뮤직 페스티벌 등에서 연주
- 예일대학교와 메릴랜드 주립대학교에서 Fellowship Quartet-in-Residence로 대학생들의 실내악을 가르침
- 현)예원학교, 서울예고, 서울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출강
- 현)파르텟21, 화음챔버오케스트라, 앙상블 자비에 멤버

PROFILE



Cello

김민지

-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
- 미국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 석사, 전문연주자과정 및 최고연주자과정 졸업(전액장학생), 프랑스 틀루즈 음악원 최고연주자 과정 수료
- 스페인 레이나소피아 오케스트라 부수석 역임(아시아 최초)
- 미국 아스트랄 아티스트 내셔널 오디션 우승, HAMS 국제 첼로 콩쿠르, 어빙 클라인 국제 현악 콩쿠르 우승 및 위촉 작품 특별상
- 허드슨 밸리 현악 콩쿠르, 뉴 잉글랜드 콘서바토리 현악 콩쿠르 1위
-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조선일보 콩쿠르 1위, 난파콩쿠르, KBS 신인음악콩쿠르 대상
- 현)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덕수궁 석조전 음악회 감독
- 현)첼리스트 첼로 앙상블 수석
- 현)금호 아시아나 솔로이스츠 및 앙상블 오푸스



Cello

김소연

- 서울대학교 강사,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예원, 서울예고 강사
- 서울시립교향악단 단원, 하임 퀼렛, 트리오 온 멤버
- 예원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명예졸업,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 입학 및 졸업,베를린 한스아이슬러(Haans Eisler) Diplom 및 Konzert Examen 졸업조선일보, 난파, 대구방송(TBC), 이화경향, 세계일보, 한국일보, 중앙일보 콩쿠르 1위CBS기독교방송 콩쿠르 전체부문 대상 (문화부 장관상 수상), Alice-Samter 실내악 콩쿠르 2위, KBS-한전 신인음악콩쿠르 전체부문 대상
- 독일 브란덴부르크 오케스트라, 서울시향, kbs오케스트라와 다수 협연
- 금호영아티스트 독주회를 시작으로 다수 독주회
- 임마뉴엘 파워, 스베틀란, 크리스티안 테츨라프, 조성현, 양인모 등 국내 외 유명 연주자들과 실내악 연주



Cello

심준호

- 40회 주네스 무지컬 국제 콩쿠르 한국인 최초 만장일치 우승
- 안토니오 야니그로 국제콩쿠르 2위
- 서울시향 수석 역임
- 칼라치 스트링 콰르텟, 앙상블 오푸스, 클럽 M멤버
- 한국인 최초 공식 라센 아티스트 선정
- 현)서울대학교, 예원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출강 중

2024 JEONJU VIVACE CHAMBER MUSIC FESTIVAL

PROFILE



Cello

오 지 현

-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예술사과정 졸업
- 독일Essen Folkwang국립음대전문연주자과정(Diplom) 졸업 및 최고연주자과정(Konzertexamen)최우수성적(mit Auszeichnung) 졸업
- 독일 Bochumer Symphoniker, 이탈리아 OLIMPIA 오케스트라, 보로딘심포니오케스트라, 대전시립교향악단, 금천교향악단, 대전챔버오케스트라, 리움챔버오케스트라 등 협연
- 청주시립교향악단, 천안시립교향악단, 금천교향악단, Joy of Strings 등 국내 유수의 앙상블과 오케스트라에서 객원수석 역임
- 현)한국예술종합학교 겸임교수
- 현)예원학교, 선화예중, 서울예고, 선화예고 출강
- 현)Oh Cello 음악감독
- 현)앙상블 포럼21 수석, 더 스트링스 멤버



Cello

장 하 안

- 예원학교, 서울예고 수석 졸업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첼로 수석 졸업
- 파리 국립 고등 음악원 석사 심사위원 만장일치 최우수 졸업
- 예폴노르말 음악원 최고연주자 과정 졸업
- 이태리 'Filadelfia' 국제 콩쿠르, 프랑스 'Leopold Bellan' 국제 콩쿠르 1위
- 동아음악콩쿠르, 이화경향 콩쿠르 1위
- 현)현대음악앙상블 소리, 서울 비르투오지, 에라 토 앙상블, 앙상블 유니송 멤버
- 현)소울 첼로 앙상블 음악감독
- 현)예원, 서울예고, 선화예중, 덕원예고, 이화여대 출강



Cello

정 광 준

- 예원학교, 서울예고, 독일 뤼벡국립음대, 로스톡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 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실내악)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 체코아나체코교향악단, 러시아 St. Petersburg 카펠레교향악단, Deutsche Oper Berlin, 성남시향, 포항시향, 한경필 등과 협연
-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대우교수, 국민대, 세종대 강사역임
- 현)경희대, 강원대, 대구가톨릭대학교, 예원, 서울예고, 선화예고, 경기예고, 계원예중 출강
- 현)디토 오케스트라 첼로수석
- 현)트리오콘스피리토 첼리스트
- 현)대한민국역사박물관 예술감독

PROFILE



Cello 최 경 은

- 예원학교, 서울예고 수석졸업 및 음악상 수상
- 서울대학교 수석 입학 및 졸업
- 영국 북부왕립음악원 석사 및 미국 남가주 대학 박사 졸업(전액장학생)
- 이화경향, 중앙, 동아, 난파콩쿨 우승
- 임원식 '운파 음악상' 수상
- Julio Cardona International Competition, Beverly Hills Competition 우승
- 서울국제음악제, 앙상블오푸스, DMZ국제음악제, 전주비바체음악제 등 초청연주
- 미국 El Camino College 교수 역임
- 현)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서울예고, 예원학교 출강



Cello 최 정 주

- 예원학교 1학년 재학 중 도영, 영국 예후디 메뉴인 학교, 미국 커티스 음대 학사, 줄리아드 음대 석사 및 최고 연주자 과정, 뉴욕 주립대 박사를 모두 전액 장학생으로 유학
- 이화경향, 한국일보, 조선일보 음악콩쿠르 1등,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신인음악 콩쿠르 및 롱 아일랜드 콘체르토 콩쿠르, 뉴욕 아티스트 인터내셔널 콩쿠르 등 우승
- 미국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스톤니 부록 오케스트라, 영국 길포드 심포니, 메뉴인 챔버 오케스트라, 코리안 심포니, 부천시향, 원주시향, 바르크 합주단, 서울시향, 울산시향, 원주시향, KT 챔버 오케스트라, 군산시향, 여수 필하모닉, Arco Diablo 챔버, 소피아 챔버, 서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
- 영국 버킹엄 궁전, 퀸 엘리자베스홀, 위그모어홀, 맨체스터 첼로페스티벌, 벨기에 러쿠 추모연주회, 미국 피아티골스키 첼로세미나, 미국 카네기홀, 링컨 센터, 일본 NHK 방송 등에서 초청 연주
- 현)추계예술대학교 교수, 트리오 드 서울, 그리움 앙상블 멤버



Cello 홍 승 아

-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졸업
- 인디애나 대학교 첼로, 바로크첼로 복수전공 석사 및 아티스트 디플롬
- 인디애나폴리스 마티네콩쿨 우승
- Kuttner Quartet Competition 우승
- 콜럼버스인디애나 필하모닉, 아스펜 필하모닉첼로 수석 및 인디애나음대 상주첼리스트 역임
- 현)부산대학교,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출강
- 현)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객원수석

2024 JEONJU VIVACE CHAMBER MUSIC FESTIVAL

PROFILE



Piano
서형민

-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서형민은 2021 '독일 본 베토벤 국제 콩쿠르' 우승 및 3개 특별상 수상, 2018 '인터내셔널 저먼 피아노 어워드' 우승, 2016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입상, 2016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우승을 했으며, 세계적 권위의 '루르 피아노 페스티벌' 2022 신인상을 한국인 최초로 수상, 데뷔 독주회를 가졌다. 뉴욕 필하모닉과 서울시향을 비롯하여,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슈타츠헤펠레 할레 등등 세계적인 교향악단과 합연하였고, 최근 '도이체 텔레콤'에게 위촉을 받아 <방향하는 한국인> 모음곡을 작곡 및 초연, 독일 현지에서 큰 호평을 받았다.
- 만 4세에 피아노를 시작, 이듬해 작곡공부를 겸한 서형민은 7살이 되던 해에 한국일보 콩쿠르에서 금상을 받고 8세에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작곡으로 입학, 이영조 원장을 사사했다. 이후 10살 때 도미, 메네스 음대 예비학교를 거쳐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존 제이 장학생'으로 고대 그리스-로마 역사를 전공하며 컬럼비아-줄리어드 더블프로그램을 통해 엠머뉴엘 액스, 마티 라이칼리오에게 피아노를 사사했고, 현재 조하노바 국립음악대학교에서 아리에 바르디 교수의 가르침 아래 최고 연주자과정을 밟고있다



Piano
진영선

- 베를린 한스아이스러 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 트로싱엔 국립음대 최고연주자과정, 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 실내악 최고연주자과정 졸업.
- Scriabin 국제콩쿨 1위, C.Bechstein competition 1등, Charles Hennen 국제실내악콩쿨 1위 없는 2위, Thessaloniki 국제실내악콩쿨 1위, Lions Musikpreises 3위, Carl-Wendling 실내악콩쿨 3위
- Deutsche Oper Berlin, Niederschlesische Philharmonie orchestra, 부천시향, 성남시향, 과천시향 협연
- 슈투트가르트 국립음대 반주강사,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대우교수, 경희대학교, 동국대음악원 강사 역임
- Trio con spirito 피아니스트
- 독주앨범 Impressive canvas 발매
- 현)국민대학교 겸임교수, 강원대학교 출강



해설
장일범

- 음악평론가, 해설가, 칼럼니스트
- 한국외대 러시아어과 졸업, 모스크바 차이콥스키 음악원 성악과 수학, 문예진흥원 극장 평론과정 수료
- 월간객석 기자 및 모스크바 통신원 역임
- MBC TV 예술무대, 삼성밀크 라디오 MC 역임, 경희대 포스트모던 음악과, 안양대 겸임교수 역임
- 스페인 마드리드 국제피아노콩쿨, 성정콩쿨 심사위원 역임
- 아트선재센터 '이야기가 있는 음악회' 기획 및 해설, 로댕갤러리, 삼성미술관 리움 목요일음악회 9년간 진행
- 부천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해설음악회, JCC 아트센터 마티네 콘서트 해설
- 울림작공원 파크콘서트, 서울시향, KBS교향악단, 코리아심포니 등을 비롯 이탈리아, 러시아, 미국 등 국내외 공연 해설자
- 13년간 KBS클래식 FM 장일범의 가정음악, 장일범의 생생클래식, 장일범의 음악풍경의 MC 역임
- 현)서울사이버대학 성악과 외래교수, 한국외대 지역대학원 러시아과 외래교수
- 국악방송 창호에 드린 햇살 진행자, 장일범의 K Classic World 유튜브
-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팟캐스터, 대한력비협회 이사

PROFILE

비바체 챔버 오케스트라

제1바이올린 이석중(악장), 송지원, 문지원, 홍의연, 황인영, 노윤정, 김현미

제2바이올린 정진희, 김정연, 김한솔, 최보경, 정연수, 김덕우

비올라 홍지혜, 김남중, 이수민, 강윤지, 홍진선, 최은식

첼로 최정주, 오지현, 최경은, 김소연

베이스 장린

오보 김재영, 전세라

호른 김용환, 김재이

피아노 채지연

John
& Arthur
Beare

Songwoo

세계 최고의 딜러 J & A Beare 의 명기와 엄선된 현대악기를
송우에서 만나보십시오!

영국 J & A Beare Ltd. 한국대리점
영국 현악전문지 The Strad 한국대리점
미국 현악전문지 Strings 한국대리점
미국 John Norwood Lee Bow 한국대리점
영국 Clutterbuck-Hill Bow 한국대리점
이탈리아 크레모나 Consorzio 한국대리점

악기보증서 발급 - J & A Beare Ltd
연주가, 제작가를 위한 전문서적
연습실 운영
악기수리

송우무역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30 양영빌딩 402호 (통의동 우체국 빌딩) 전화: 02-733-1181, e-mail: mail@songwoo.biz



2024 제8회

전주 비바체 실내악 축제

Jeonju Vivace Chamber Music Festival

2024.07.23(Tues)-27(Sat)



주최 및 주관 :

MF (사)비바체음악페스티벌
www.jeonjuvivace.com

후원 및 협찬 :

모래내피부과, 현대음악사, (주)공향리무진, Songwoo

Jeonju
C Vivace
Chamber Music
Festival

